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미 숙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규 수업 외의 음악 활동 경험이  
중학생의 음악 흥미도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201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지 희

정규 수업 외의 음악 활동 경험이  
중학생의 음악 흥미도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김 미 숙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지 희

# 인 준 서

김지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이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음악 활동 경험과 음악 흥미도, 정서지능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건전한 음악 활동을 장려하는 데에 있다.

학생의 음악 활동 경험이 음악 교과와 음악 흥미도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인천시 소재 남녀 공학 중학교 3개교를 선정한 후 각 학교의 1학년 남학생 157명과 여학생 131명, 총 28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한 후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음악 활동 경험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된 음악 활동 경험 설문지와 음악 흥미도를 측정하기 위한 음악 흥미도 설문지,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한 정서지능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회수한 자료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 프로그램은 SPSS WINDOWS 18.0을 이용하였으며 독립표본 T검정과 이변량 상관분석, 교차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이렇게 실시한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의 음악 흥미도의 평균( $n=42.9371$ )이 활동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 $n=35.3448$ )보다 높기 때문에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이 음악 활동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높은 음악 흥미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의 정서지능의 평균( $n=141.0490$ )이 활동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 $n=132.9103$ )보다 높기 때문에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이 음악 활동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높은 정서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모두에서 음악 흥미도와 정서지능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음악 흥미도와 정서지능은 유

의한 상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음악 활동은 학생들의 음악 흥미도와 정서지능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학생들이 다양하고 건전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할 것이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	3
II. 이론적 배경 .....	4
1. 흥미도 .....	4
2. 정서지능 .....	5
3. 선행 연구 고찰 .....	11
III. 연구 방법 .....	14
1. 연구 대상 .....	14
2. 연구 도구 .....	14
3. 연구 방법 및 절차 .....	20
4. 연구 분석 방법 .....	21
IV. 결과 및 해석 .....	23
1. 기초 자료 분석 .....	23
2. 음악 활동 경험에 따른 음악 흥미도의 차이 .....	41
3. 음악 활동 경험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 .....	44

4. 음악 흥미도와 정서지능의 상관관계 .....	46
5. 성별에 따른 음악 활동 경험의 영향 차이 .....	49
6. 결과 요약 .....	55
V. 결론 .....	58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 표 목 차

<표Ⅱ-1> 정서지능 연구의 흐름 .....	6
<표Ⅲ-1> 연구 대상 .....	14
<표Ⅲ-2> 음악 활동 경험에 대한 설문지의 내용 및 문항 구성 .....	16
<표Ⅲ-3> 음악 흥미 검사지의 내용 및 문항 구성 .....	17
<표Ⅲ-4> 정서지능 검사 문항 구성 .....	18
<표Ⅲ-5> 음악 흥미도의 신뢰도 계수 .....	19
<표Ⅲ-6> 정서지능의 신뢰도 계수 .....	20
<표Ⅲ-7> 연구 절차 .....	21
<표Ⅳ-1> 음악 활동 경험의 유·무 (n=288) .....	23
<표Ⅳ-2> 음악 활동 유형별 학생 비율 .....	25
<표Ⅳ-3> 계발활동 경험의 종류 (중복답변) .....	26
<표Ⅳ-4> 방과 후 활동 경험의 종류 (중복답변) .....	27
<표Ⅳ-5> 개인레슨 및 음악학원 경험의 종류 (중복답변) .....	28
<표Ⅳ-6> 종교 활동 경험의 종류 (중복답변) .....	29
<표Ⅳ-7> 음악 흥미도 독립표본검정 .....	41
<표Ⅳ-8> 음악 흥미도 집단통계량 .....	43
<표Ⅳ-9> 정서지능 독립표본검정 .....	44
<표Ⅳ-10> 정서지능 집단통계량 .....	45
<표Ⅳ-11> 남자 상관계수 .....	47
<표Ⅳ-12> 여자 상관계수 .....	48
<표Ⅳ-13> 성별에 따른 음악 흥미도 교차표 .....	49
<표Ⅳ-14> 음악 흥미도 합계 평균 분석 .....	51

<표Ⅳ-15> 성별에 따른 정서지능 교차표 .....	51
<표Ⅳ-16> 정서지능 합계 평균 분석 .....	54

## 그림 목 차

<그림Ⅳ-1> 음악 활동 진행 여부 .....	30
<그림Ⅳ-2> 음악 활동 진행 이유 .....	31
<그림Ⅳ-3> 음악 활동을 그만둔 이유 .....	32
<그림Ⅳ-4> 음악 활동 진행 희망 여부 .....	33
<그림Ⅳ-5> 음악 활동을 지속하고 싶은 이유 .....	34
<그림Ⅳ-6> 음악 활동을 지속하고 싶지 않은 이유 .....	35
<그림Ⅳ-7> 음악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음악 활동 무경험 집단) .....	36
<그림Ⅳ-8> 음악 활동 무경험 집단의 음악 활동 희망 여부 .....	37
<그림Ⅳ-9> 음악 활동을 희망하는 이유 .....	38
<그림Ⅳ-10> 음악 활동이 수업에 미치는 영향(음악 활동 경험 집단) .....	39
<그림Ⅳ-11> 음악 활동이 수업에 미치는 영향(음악 활동 무경험 집단) ..	40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적으로 봤을 때 음악 경험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음악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대표적인 사상가들에 의해 확인되어왔다. 플라톤은 음악적 경험들을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합리적인 인간이 되도록 하는 교육적 매개물로 보고, 인간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인 면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음악 경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언급을 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음악은 여가와 휴식을 제공하며, 성격 형성에 기여하고 심성 계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sup>1)</sup>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음악 활동이라는 단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교육과정에 따르면, 음악 교과의 교육 목표 중 하나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음악성과 창의성, 음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안목을 키움으로써 음악을 삶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sup>2)</sup> 즉, 다양한 음악 활동으로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음악의 가치를 인식하며 더 나아가 음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음악을 활용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음악 교육의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음악 활동 경험이 필요하다.

최근 전인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인성 교육과 음악을 비롯한 예술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정서가 인간의 발달에서 중요한

---

1) 민경훈 외(2013). *음악교육학 총론*. 서울: 학지사. p. 52.

2) 교육과학기술부(2009).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p. 4.

의미를 갖는 영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며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와 동시에 지능의 한 형태로서 정서지능(EQ; Emotional Quotient)이라는 용어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Mayer와 Salovey는 정서지능을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평가하고 표현할 줄 아는 능력,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정서를 사거나 행동에 대한 정보로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세 가지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정서지능은 누구나 학습이 가능하며 그 능력을 계발하고 활용할 수 있다. Payne는 “학교에서 자유로운 정서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지능이 증진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Elias 또한 “정서지능이란, 사회적, 정서적 기술에서의 유능함을 설명하는 통합적인 개념으로, 이는 학습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sup>3)</sup>

Dewey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흥미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듀이는 학습이 진정한 학습자의 흥미에 의해서가 아닌 강요에 의해 행해진다면, 그것은 비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즉, 학습자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할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흥미는 어떤 것에 대한 몰두와 성과 그리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개인으로 하여금 어떤 일에 즐거움을 느끼고 호기심을 갖게 하는 동기적 성향을 뜻한다. 또한, 특정분야에서 남다른 성취를 가져오게 하며, Helson과 Srivastava에 의하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동안 흥미를 많이 느낄수록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며 장기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안녕이 증대된다고 한다. 그리고 McCombs는 “흥미가 도전과 좌절을 잘 견디며 극복하게 만든다.”고 하였다.<sup>4)</sup>

흥미는 학생의 활동을 유발하고, 그것을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지속적이고 높은 학업성취를 위해서는

---

3) 정옥분 외(2007). 정서발달과 정서지능. 서울: 학지사. p. 260, p. 263. 재인용.

4) 권석만(2011). 긍정심리학. 서울: 학지사. p. 396. 재인용.

흥미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교육심리학의 측면에서 흥미는 사람이 주의집중이나 획득을 위해 어떤 특정한 대상, 활동, 이해, 기술, 또는 목표를 추구하도록 충동질하는 경험을 통하여 조직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흥미는 행동지향적이며 학습된 것이고, 또 학습을 통하여 조직된다.<sup>5)</sup> 이러한 흥미를 음악에 관련된 영역만으로 한정된 것이 음악 흥미도이다.

지금까지 선행된 연구는 음악 활동 경험의 범위를 좁혀 특정 활동을 지정하여 연구하거나 음악 활동 경험과 성취도와 같은 다른 요소들의 연관성을 연구하였다. 이에 이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음악 활동 경험과 음악 흥미도, 정서지능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건전한 음악 활동을 장려하는 데에 있다.

## 2.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는 학생의 음악 활동 경험<sup>6)</sup>이 음악 교과의 흥미도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음악 활동 경험의 유·무에 따른 음악 흥미도의 차이가 있는가?

둘째, 음악 활동 경험의 유·무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가 있는가?

셋째,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중학생의 음악 흥미도와 정서지능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가?

---

5) 이용남, 김은아(2013). **인간 특성과 교육**. 서울: 학지사. pp. 92-93.

6) 이 연구에서 음악 활동 경험은 학교 정규 수업 외의 모든 활동을 포함하며, 학교 계발활동과 방과 후 활동, 개인 레슨 및 학원, 종교 활동을 의미한다.

## II.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흥미도와 정서지능의 정의와 영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흥미도<sup>7)</sup>

흥미는 어떤 종류의 활동이나 사물에 대해서 특별한 주의나 관심을 갖게 하는 개인의 행동 경향을 의미한다. 즉, 어떤 일에 즐거움을 느끼고 호기심을 갖게 하는 동기적인 성향을 의미하는데 어떤 일에 몰두하거나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흥미에 의해 유발된 것이다. 흥미는 좌절과 실패 혹은 절망 앞에서도 인내를 하게 만들고 자신이 하는 일에 노력하게 하고 만족도를 높여주며 지속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어릴 때에는 흥미가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성장하면서 구체화되고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즉, 흥미는 성장함에 따라 발전하고 변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흥미는 아무런 자극 없이는 발달하지 않는데 주로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격려를 통해서 발전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교과에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사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정보적인 지식만을 제공하는 것보다 적절한 수준의 과제를 제시하여 성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에 따른 전폭적인 지지와 칭찬 등의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흥미는 인간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 높은

---

7) 권석만(2011). *긍정심리학*. 서울: 학지사. p. 396. 박천환(2012). *듀이의 경험이론과 교육인식론*. 서울: 학지사. pp. 153-154. 요약정리.

성취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한다. 흥미는 좌절을 견디며 극복하게 만들고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도전을 할 때에도 큰 원동력이 되어준다. 또한 어떤 일을 해내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고 신체적, 심리적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

이러한 흥미를 음악이라는 영역에 적용시킨 개념이 음악 흥미인데,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음악 흥미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음악 흥미를 음악에 대한 태도와 음악에 대한 활동, 그리고 음악에 대한 관심이라는 3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었다. 음악에 대한 태도는 경험이나 학습의 결과로 형성되며 적극성, 탐구욕, 자신감과 같은 음악에 대한 개인의 일관적인 감정적 반응을 말한다. 음악에 대한 활동은 학생들이 학교 정규 수업을 제외한 시간에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음악 활동들을 말하며, 음악에 대한 관심은 음악에 만족감을 느낌으로써 그 활동을 좋아하게 되고 더 나아가 지속의지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 2. 정서지능<sup>8)</sup>

18세기 말 유럽에서 일어난 낭만주의 운동은 감성을 배제하고 이성을 강조하던 이전의 시대적 흐름을 바꾸어놓았고, 이 시기부터 정서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이 때 정서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한 사람은 Hume과 Darwin이다. Hume은 “정서적 충동은 모든 행동을 동기화한다.”고 말하며 “이성이란 감성에 의해 설정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

8) 정옥분 외(2007). 정서발달과 정서지능. 서울: 학지사. pp. 253-272. Gerald Matthews 외(2004). *Emotional Intelligence: Science & Myth*. 문용린 외(2010). 정서지능: 그 오해와 진실. 서울: 학지사. pp. 37-174. Joseph Ciarrochi 외(2005). *Emotional Intelligence in Everyday Life*. 박재현 외(2005). 정서지능. 서울: 시그마프레스. pp. 3-68, pp. 199-224. 김경희(2004). 정서심리학. 서울: 박영사. pp. 229-233. 요약정리.

수단일 뿐”이라고 말하였다. 또, Darwin은 동물을 관찰한 결과들을 토대로 “정서는 인간이 개인의 환경이나 상황을 판단할 때 중요한 정보를 줌으로써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할 때 도움을 주는 정보제공의 기능을 한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1960년대에 Piaget의 인지발달이론과 함께 인지가 다시 강조되었고 이러한 영향으로 1970년대 이전까지는 감성과 이성, 정서와 지능은 각각 분리된 영역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의 연구의 초점은 사고와 정서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맞춰졌고 시민운동이나 여성운동과 같은 여러 사회운동을 계기로 정서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20세기 후반 이후로는 급격한 과학문명의 발달과 빠른 사회적 변화로 나타난 여러 사회문제들로 인해 인간의 정서에 관련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와 같은 흐름은 1990년 이후에 이르러 정서지능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며 이 시기에 비로소 정서지능이 연구주제로서 처음 등장하게 된다.

정서지능은 지능과 정서가 통합된 개념으로,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정확히 평가하고 표현하며 더 나아가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정서지능의 연구 흐름은 <표Ⅱ-1>과 같이 다섯 시기로 나눌 수 있다.

<표Ⅱ-1> 정서지능 연구의 흐름<sup>9)</sup>

시기	연구의 흐름
1900년-1969년	독립된 별개의 영역으로서의 지능과 정서
1970년-1989년	정서지능의 전조
1990년-1993년	정서지능의 등장
1994년-1997년	정서지능의 대중화
1998년-현재	정서지능의 정착

9) Joseph Ciarrochi 외(2005). *Emotional Intelligence in Everyday Life*. 박재현 외(2005). *정서지능*. 서울: 시그마프레스, pp. 6-7.

첫 번째 시기인 1900년부터 1969년에는 정서와 지능이 서로 분리되어서 별개의 연구주제로 다루어졌다. 정서 분야에서는 생리적인 반응과 감정 중 어느 것이 먼저인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었고 정서가 문화적으로 결정되는 것인지 혹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었다. 반면 지능 분야에서는 초기 지능검사들이 연구되며 개발되고 있었다.

두 번째 시기는 1970년부터 1989년이다. 이 시기에는 정서지능의 전조라고 할 수 있는 개념들이 나타났다. 이전에 별개의 연구주제로 다루어졌던 정서와 지능이 인지와 정서(또는 사고와 감정)라는 새로운 연구 영역으로 통합되며 정서가 인간의 사고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때까지는 정서지능이라는 용어가 간헐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정식으로 정의가 내려진 것은 아니었다.

세 번째 시기는 1990년부터 1993년을 말한다. 이 시기에 Mayer와 Salovey가 이전까지 있었던 연구들을 바탕으로 정서지능이라는 용어를 정의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고 이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최초의 심리검사를 보고하는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때가 1990년이었고, 이를 통해 정서지능이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네 번째 시기는 1994년부터 1997년을 말하며 본격적으로 정서지능이 대중화되는 시기이다. 'New York Times'의 과학 담당 기자이자 심리학자였던 Goleman이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라는 저서를 출간하고 이 책이 1995년 'New York Times' 베스트셀러로 선정되면서 정서지능이라는 용어가 대중화되고 EQ(Emotional Quotient)라는 용어가 알려졌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시기는 대략 1998년부터 현재까지를 포함한다. 정서지능은 현재까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개념이 다듬어지며 새로운 측정도구들이 개발되고 있고, 과학적이고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정서지능의 개념적 정의는 다양하다. 정서지능을 하나의 능력으로 간주하는 관점과 포괄적인 성격 특성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는 관점에 따라 능력모델과 혼합모델로 나뉜다. 능력모델은 정서지능을 정서와 관련된 지능이나 능력으로 개념화하고 있고 혼합모델은 정서지능을 다른 재능이나 성격특성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능력모델의 관점에서 최초로 정서지능을 정의한 Salovey와 Mayer는 정서지능을 정서의 평가와 표현, 정서의 조절, 정서의 활용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정의 내렸다.<sup>10)</sup> 즉, 정서지능을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평가하고 표현할 줄 알며, 정서를 조절하고 더 나아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개념은 정서의 인식과 조절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었고, Salovey와 Mayer는 이를 보완하여 정서지능을 새롭게 개념화하였다.

새롭게 정의된 정서지능은 정서를 정확히 지각하는 능력, 사고추진을 위해 정서를 사용하는 능력, 정서와 그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라는 4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졌다. 이 4개의 영역은 비교적 단순한 능력인 정서를 정확히 지각하는 능력에서부터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으로 점차 높고 보다 통합된 과정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으며 각 영역은 4개의 대표적인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1)</sup>

첫째, 정서를 정확히 지각하는 능력은 자신의 신체상태, 느낌이나 사고에 따라 정서를 규명할 수 있는 능력과 타인이나 예술품 등에서 언어나 소리, 몸짓, 행동으로 드러나는 정서를 규명할 수 있는 능력, 정서나 이와 관련된 욕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정확한 것과 부정확한 것, 정직한 것과 그렇지 못한 정서표현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

10) 정육분 외(2007). *정서발달과 정서지능*. 서울: 학지사. p. 264.

11) Joseph Ciarrochi 외(2005). *Emotional Intelligence in Everyday Life*. 박재현 외(2005). *정서지능*. 서울: 시그마프레스. p. 13. 정육분 외(2007). *정서발달과 정서지능*. 서울: 학지사. pp. 263-271.

둘째, 사고촉진을 위해 정서를 사용하는 능력은 중요한 정보에 우선적으로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사고를 촉진시키는 능력과 느낌과 관련된 판단이나 기억을 돕기 위해 정서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 정서적 상태에 따른 관점의 차이를 수용하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 마지막으로 문제해결이나 창의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셋째, 정서와 그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은 정서를 의미할 수 있고 정서를 의미하는 단어와 정서들과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과 슬픔이 상실감을 동반하는 것과 같이 인과관계에 따라 정서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복합적인 느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정서들 간의 전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넷째,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은 유쾌하거나 불쾌한 느낌들에 대해 개방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상황에 따라 정서에 개입하거나 초연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이나 타인과 관련된 정서를 모니터할 수 있는 능력, 부정적인 정서는 완화시키고 긍정적인 정서는 강화시키는 등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혼합모델의 관점에서 Goleman은 정서지능을 “우리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 내부에서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정서를 잘 다루는 능력”으로 정의하며 5개의 하위요인으로 설명하고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과 Salovey와 Mayer의 주장을 종합하여 정서적 능력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Goleman이 구분한 5개의 하위요인은 자신 정서 인식, 자기 정서 조절, 자기 동기화, 타인 정서 인식, 대인관계기술이다.

첫째, 자기 정서 인식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말한다. 여기에서 정서를 인식한다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를 포함한다. 첫 번째는 정서가 유발되는 동기와 기능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내

적 상태 및 변화와 외적 사건이 자신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아는 것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정서 유발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행동과 표현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자기 정서 조절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 조절은 기존의 정서 통제라는 용어가 1980년대 이후부터 대체된 것이다. Gottman과 Katz는 정서 조절을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처리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고, 분노의 조절, 절제, 인내심, 생각과 감정, 또는 행동을 조화시키는 능력, 사회적·문화적으로 인정되는 방향으로 바르게 정서를 표현하는 능력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셋째, 자기 동기화는 어려움을 참고 자신의 성취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생산적인 결과를 위해 정서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Goleman은 자기 정서를 이용하는 것이 주의 집중과 인내심, 성취동기, 몰입을 필요로 하는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넷째, 타인의 정서 인식은 감정이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타인의 감정을 읽고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감정이입에 대해 Hoffman은 타인의 감정을 읽고 타인의 감정에 대한 대리적 정서 반응으로 정의하고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다섯째, 대인관계기술은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능력모델의 관점에서 Salovey와 Mayer가 정의한 정서지능의 개념을 활용하여 정서를 정확히 지각하는 능력을 정서지각이라는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사고촉진을 위해 정서를 사용하는 능력과 정서와 그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을 정서활용 및 정서이해라는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정서조절이라는 영역으로 구분하여 총 3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 3. 선행 연구 고찰

이 연구는 학생들의 음악 활동 경험과 음악 흥미도, 정서지능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함으로,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으며 선행 연구들 중에서 이 연구와 가장 밀접한 주제와 목적을 갖고 있는 논문들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장지혜(2012)<sup>12)</sup>는 “교내·외 음악 활동 경험이 음악교과의 성취도 및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음악 활동 경험의 유·무와 음악 교과 성취도, 음악 흥미도의 관계를 알고 음악 교과 성취도와 음악 흥미도의 관계를 알아보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음악 활동은 아동에서 성인기로 진입하는 중간 단계로 정서적 · 신체적 · 감정적인 면에서 불완전 존재이며 사회범주가 불확실함에 따라 불안정한 심리적 변화를 특징으로 한다. 또한, 사회·문화적 영향에 쉽게 흔들리고 주변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며 대중음악으로부터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강한 또래 음악 문화를 형성한다. 음악 활동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으로는 생활의 돌파구 혹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데 의미를 두며 아름다운 인격형성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음악 학업 성취도와 성적은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이 활동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음악 활동 경험의 유무에 따른 흥미도의 차이 또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흥미도의 점수도 유 경험 집단이 모든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인영(2014)<sup>13)</sup>의 “음악 동아리 활동이 중학생의 음악 흥미도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은 중학생의 음악동아리 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음악 흥

12) 장지혜(2012). 교내·외 음악 활동 경험이 음악교과의 성취도 및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3) 이인영(2014). 음악 동아리 활동이 중학생의 음악 흥미도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도와 정서지능의 차이 및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 소재의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사이의 재학생 1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지 내용은 일반적 특성, 음악 흥미도, 정서 지능에 대한 세 가지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일반적 특성 항목은 동아리 활동의 참여 여부, 학년, 활동 종류, 참여 동기 그리고 개방형 문항의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악 흥미도 항목은 음악 교과의 흥미, 음악적성과 태도 그리고 음악에 대한 가치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정서 지능은 정서 인식과 표현, 감정이입, 사고촉진, 정서지식의 활용, 정서 조절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8문항씩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집한 자료는 SPSS Ver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연구 결과, 음악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음악 흥미도 및 모든 하위 요소분야에서 음악 동아리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 보다 높은 지수를 가지고 있고 음악 동아리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음악 흥미도와 정서지능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세라(2013)<sup>14</sup>의 “음악 활동경험이 정서지능, 음악적성, 음악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 활동과 정서지능, 음악적성, 음악 흥미도와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연구는 설문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지능정서검사와 음악적성검사, 음악 흥미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항에 따라 표준점수,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음악 활동 경험과 감정이입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음악 활동 경험과 음악적성과의 상관관계에서도 낮지만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음악 활동 경험과 음악 흥미도에서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였다.

---

14) 이세라(2013). 음악 활동경험이 정서지능, 음악적성, 음악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김향숙(2000)<sup>15)</sup>은 “음악적성 및 음악흥미와 정서지능과의 관련성 연구”에서 중·고등학생의 음악적성과 음악흥미가 정서지능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고, 정서지능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음악적 특성 변인은 무엇인지, 또한 변인에 따른 집단 간의 정서지능의 차이는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시의 남녀공학인 중학교 두 곳과 고등학교 한 곳의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흥미 검사 약 10분, 음악적성 검사 25분, 정서지능 검사 15분을 실시하였고 총 441명의 자료를 최종 연구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음악적성 상위그룹은 하위그룹보다 정서지능의 모든 하위 구성 요소에서 점수가 높았으며, 그 중 정서조절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음악적성과 정서지능은 미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두 번째로 음악흥미 상위그룹은 하위그룹보다 정서지능의 모든 하위 구성 요소에서 점수가 높았으며, 음악흥미와 정서지능의 상관관계는 음악적성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성별, 학교 급별, 음악적성, 음악흥미, 음악 레슨 기간, 가족 중 전공자의 유무 등의 음악적 변인에 따라 정서지능에 차이를 보였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음악 활동 경험의 범위를 좁혀 특정 활동을 지정한 연구들이 많았고 음악 흥미도와 정서지능을 중점으로 다룬 연구는 드물었다. 또한, 연구대상이 중학교 1학년 학생들로 지정되어있거나 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음악 활동 경험이 음악 흥미도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하며 음악 활동 경험을 한정 짓지 않고 최대한의 범위로 포함한다. 또한, 인천 지역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

15) 김향숙(2000). 음악적성 및 음악흥미와 정서지능과의 관련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Ⅲ. 연구 방법

이 장에서는 연구 대상과 연구 도구, 그리고 연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 연구 분석 방법을 제시한다.

####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인천시 소재 남녀 공학 중학교 3개교를 선정된 후 각 학교의 1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총 371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는데 그 중 검사자료에 불성실한 응답자 83명의 자료를 제외한 288명의 자료가 연구에 활용되었다. 응답자 288명은 남학생 157명과 여학생 131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Ⅲ-1>과 같다.

<표Ⅲ-1> 연구 대상

	A학교	B학교	C학교	합계
남학생	44	65	48	157
여학생	49	50	32	131

#### 2. 연구 도구

이 연구에서 활용된 도구는 음악 활동 경험에 대한 설문지와 음악 흥미 검

사지, 그리고 정서지능 검사이다. 이에 대하여 설문지 구성과 신뢰도의 순서로 연구 도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설문지 구성

각 설문지는 음악 활동 경험, 음악 흥미도, 정서지능으로 구성되었다.

##### 1) 음악 활동 경험

학생들의 음악 활동 경험의 여부와 종류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장지혜<sup>16)</sup>의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를 참고하여 재구성되었고, 크게 음악 활동 경험의 유·무와 이유, 활동 종류 및 기간, 활동을 이어나갈 여부 등에 관해 묻는 문항으로 제작되었다.

응답자가 음악 활동을 한 가지라도 한 경우에는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고, 다양한 종류의 음악 활동 중 한 가지라도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음악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음악 활동의 유형과 종류를 묻는 질문에는 중복응답을 허용하였다. 설문지의 자세한 내용과 문항 구성은 <표Ⅲ-2>와 같다.

---

16) 장지혜(2012). 교내·외 음악 활동 경험이 음악교과의 성취도 및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표Ⅲ-2> 음악 활동 경험에 대한 설문지의 내용 및 문항 구성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음악 활동의 종류 및 기간
	음악 활동의 유지 및 중단 이유
	음악 활동의 유지 희망 여부 및 이유
	음악 활동의 영향
음악 활동 경험이 없는 경우	음악 활동 여부 및 이유
	음악 활동의 유지 희망 여부 및 이유
	음악 활동의 영향

## 2) 음악 흥미도

이 연구에서는 Show와 Tomcala(1976)가 제작한 ‘음악에 대한 태도 척도’와 배성애<sup>17)</sup>의 ‘음악 흥미 검사’, 김향숙<sup>18)</sup>의 ‘음악 흥미 검사지’를 기초로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음악 흥미 검사 도구는 음악에 대한 태도에 관련된 문항 8개와 음악에 대한 활동에 관련된 문항 7개, 음악에 대한 관심에 관련된 문항 5개를 하위요인으로 하여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설문지의 자세한 내용과 문항 구성은 <표Ⅲ-3>과 같다.

17) 배성애(2000). 음악 적성 및 음악 흥미와 음악 성취도 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18) 김향숙(2000). 음악적성 및 음악흥미와 정서지능과의 관련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표Ⅲ-3> 음악 흥미 검사지의 내용 및 문항 구성

내용	문항 구성	문항수
음악에 대한 태도	1, 3, 4, 5, 7, 10, 12, 20	8
음악에 대한 활동	8, 9, 11, 13, 14, 16, 18	7
음악에 대한 관심	2, 6, 15, 17, 19	5

### 3) 정서 지능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정서지능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 Mayer와 Salovey(1997)의 정서지능 모형에 의거하여 문용린(1996)이 제작하고 대교교육과학연구소(1997)에서 표준화 과정을 거쳐 제작한 ‘청소년용 정서지능검사’를 재구성하였다. 재구성한 ‘청소년용 정서지능검사’는 정서지각, 정서활용 및 정서이해, 정서조절이라는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설문의 응답자가 정서지능에 대한 자신의 생각 및 지각을 스스로 보고하는 자기보고 검사(self-report test)이다. 설문지는 총 40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 도구의 하위영역과 내용, 해당하는 문항의 번호와 총 문항 수는 <표Ⅲ-4>와 같다.

<표Ⅲ-4> 정서지능 검사문항 구성

영역	내용	문항 번호	총 문항 수
정서지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규명할 수 있는 능력</li> <li>- 정서나 이와 관련된 욕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li> <li>- 정서표현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li> </ul>	2, 6, 7, 11, 12, 13, 16, 17, 18, 22, 24, 32, 33	13
정서활용 및 정서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요한 정보에 우선적으로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사고를 촉진시키는 능력</li> <li>- 판단이나 기억을 돕기 위하여 정서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li> <li>- 문제해결이나 창의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li> <li>- 정서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li> <li>- 정서들 간의 전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li> </ul>	1, 3, 4, 5, 8, 14, 19, 21, 23, 26, 27, 28, 29, 30, 34, 36, 38, 39	18
정서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모니터할 수 있는 능력</li> <li>-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li> </ul>	9, 10, 15, 20, 25, 31, 35, 37, 40	9

나. 신뢰도

이 연구에서 사용한 음악 흥미도와 정서지능의 검사지는 중학교 교사 1명과 중학교 1학년 학생 3명을 대상으로 예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활용하여 항목분석을 실시

하였다. 각 검사지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 1) 음악 흥미도

음악 흥미 검사지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활용하여 항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하위요인의 Cronbach's  $\alpha$  계수가 각각 0.898, 0.845, 0.785으로 나타났으며 설문지 전체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0.915로 확인되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검사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표Ⅲ-5>와 같다.

<표Ⅲ-5> 음악 흥미도의 신뢰도계수

	음악에 대한 태도	음악에 대한 활동	음악에 대한 관심	전체
Cronbach's $\alpha$	0.898	0.845	0.785	0.915

### 2) 정서지능

정서지능 검사지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활용하여 항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하위요인의 Cronbach's  $\alpha$  계수가 각각 0.837, 0.917, 0.730으로 나타났으며 설문지 전체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0.922로 확인되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검사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표Ⅲ-6>과 같다.

<표Ⅲ-6> 정서지능의 신뢰도계수

	정서지각	정서활용 및 정서이해	정서조절	전체
Cronbach's $\alpha$	0.837	0.917	0.730	0.922

### 3. 연구 방법 및 절차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5년 9월부터 10월까지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선행 연구와 문헌을 고찰하며 이론적 배경을 작성하였다. 11월과 12월에는 연구대상을 설정하고 설문지의 내용과 틀을 구성하였다. 그 후, 2016년 3월에 설문지를 검토하고 예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검사의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수정하고 완성하였다. 4월과 5월에는 학교를 섭외하고 설문지 배부 및 수렴하였고 이를 토대로 연구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후, 자료를 정리하고 논문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연구 절차를 정리하면 <표Ⅲ-7>과 같다.

<표Ⅲ-7> 연구 절차

연구 시기	연구 내용
2015년 9월-10월	연구 주제 선정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설정 선행 연구 및 문헌 고찰 이론적 배경 작성
2015년 11월-12월	연구 대상 설정 설문지의 틀과 내용 구성
2016년 3월	설문지 검토 예비검사 실시 설문지 수정 및 완성
2016년 4월	학교 섭외 설문지 배부 및 수렴 연구 결과 분석 자료 정리 논문 작성

#### 4. 연구 분석 방법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각 학교에 배부된 설문지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회수하여 수집한 후 음악 활동에 관한 설문지와 음악 흥미도 검사, 정서지능 검사의 결과를 토대로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SPSS WINDOWS 18.0을 이용하였으며 분석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척도의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KMO와 Bartlett 검정을 실시하였다.

둘째,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활용하여 항목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음악 활동여부에 따른 흥미도의 차이와 정서지능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넷째, 흥미도와 정서지능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을 나누어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음악적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성별에 따른 흥미도와 정서지능의 차이를 알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이 장에서는 음악 활동 경험과 음악 흥미도, 정서지능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들의 분석 결과와 해석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기초 자료 분석

기초 자료 분석의 결과는 음악 활동 경험의 유·무,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 음악 활동 경험이 없는 집단, 그리고 음악 활동이 학교 음악 수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였다.

#### 가. 음악 활동 경험의 유·무

음악 활동 경험의 유·무를 묻는 문항에 응답한 학생들의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음악 활동 경험의 유·무 (n=288)

	빈도	백분율
유경험집단(남)	53	18.4%
유경험집단(여)	90	31.3%
무경험집단(남)	104	36.1%
무경험집단(여)	41	14.2%
합계	288	100%

분석 결과, 총 288명의 학생 중에서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은 143명으로 49.7%에 해당하였고 음악 활동 경험이 없는 학생은 145명으로 50.3%에 해당하였다.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어서 세분화해보면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남학생은 53명으로 전체의 18.4%를 차지하고 있고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여학생은 90명으로 31.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음악 활동 경험이 없는 남학생은 104명으로 36.1%를 차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음악 활동 경험이 없는 여학생은 41명으로 14.2%를 차지하고 있다.

남학생은 음악 활동 경험이 없는 학생이 많은 반면, 여학생은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나.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

음악 활동 경험의 유·무를 묻는 문항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과 음악 활동 경험이 없는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이 응답한 음악 활동 유형과 음악 활동 진행 여부 및 이유를 묻는 문항들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음악 활동 유형

음악 활동의 유형과 종류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은 학생들이 어떠한 음악 경험을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중복 답변을 허용하였고,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각각의 데이터로 처리하였다.

<표 IV-2> 음악 활동 유형별 학생 비율 (중복 답변)

활동	빈도	백분율
계발활동	47	16.3%
방과 후 활동	55	19.0%
개인레슨 및 음악학원	140	48.4%
종교단체	47	16.3%
합계	289	100%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 집단이 경험한 활동은 <표 IV-2>에서 알 수 있듯이 방과 후 활동 55명(19.0%), 개인레슨 및 음악학원 140명(48.4%), 계발활동 47명(16.3%), 종교단체 47명(16.3%)로 개인레슨 및 음악학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방과 후 활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계발활동과 종교단체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표Ⅳ-3> 계발활동 경험의 종류 (중복답변)

계발활동	합창부	관현악부	밴드부	음악 감상부	그 외	합계
빈도(명)	22	3	6	2	14	47
빈도(%)	46.8%	6.3%	12.8%	4.3%	29.8%	100%

음악 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143명 중 계발활동을 경험한 학생은 총 47명이었으며 학교 계발활동 경험의 종류를 알아보는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Ⅳ-3>에서 볼 수 있듯이 합창부 22명(46.8%), 그 외 14명(29.8%), 밴드부 6명(12.8%), 관현악부 3명(6.3%), 음악 감상부 2명(4.3%)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계발활동을 경험한 학생 집단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학생이 활동한 곳은 합창부이고, 가장 적은 수의 학생이 활동한 곳은 음악 감상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Ⅳ-4> 방과 후 활동 경험의 종류 (중복답변)

악기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피아노	기타	가야금	우쿨렐레	오카리나	그 외	합계
(명) 빈도	9	1	2	16	8	4	6	2	7	55
(%) 빈도	16.4%	1.8%	3.6%	29.1%	14.6%	7.3%	10.9%	3.6%	12.7%	100%

음악 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143명 중 방과 후 활동을 통하여 음악 활동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5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활동 경험의 종류를 알아보는 질문의 분석 결과는 <표Ⅳ-4>와 같이 나타났다.

바이올린 9명(16.4%), 첼로 1명(1.8%), 플루트 2명(3.6%), 피아노 16명(29.1%), 기타 8명(14.6%), 가야금 4명(7.3%), 우쿨렐레 6명(10.9%), 오카리나 2명(3.6%), 그 외 7명(12.7%)으로 피아노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바이올린, 기타의 순으로 경험 비율이 높았다.

<표Ⅳ-5> 개인 레슨 및 음악학원 경험의 종류 (중복답변)

악기	개인 레슨	음악학원	문화센터	그룹지도	그 외	합계
빈도(명)	21	101	5	3	10	140
빈도(%)	15%	72.1%	3.6%	2.1%	7.2%	100%

개인 레슨 및 음악학원 경험의 종류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Ⅳ-5>와 같다. 개인 레슨과 학원을 통하여 음악 활동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은 총 140명이었고 개인레슨을 통하여 음악 활동을 경험한 학생이 21명으로 15%, 음악학원이 101명으로 72.1%, 문화센터가 5명으로 3.6%였으며 그 외에도 그룹지도가 3명으로 2.1%, 그 외가 10명으로 7.2%의 비율로 나타났다. 즉, 개인 레슨과 음악학원을 통하여 음악 활동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경우 가장 많은 음악 활동 경험을 한 곳은 음악학원(72.1%)이었다.

<표Ⅳ-6> 종교 활동 경험의 종류 (중복답변)

종교활동 종류	성가대	찬양팀	건반악기연주	드럼	기타	오케스트라	그 외	합계
(명) 빈도	12	14	6	3	3	3	6	47
(%) 빈도	25.5%	29.7%	12.8%	6.4%	6.4%	6.4%	12.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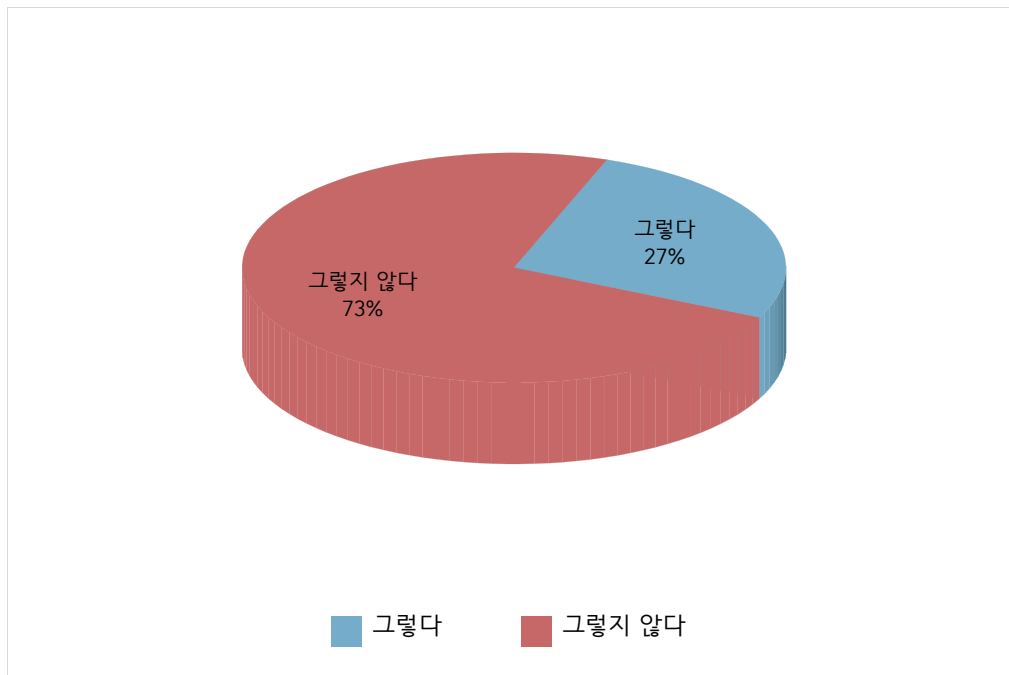
종교 활동 경험의 종류에 대한 문항의 분석 결과는 <표Ⅳ-6>과 같다. 음악 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 중 교회와 성당, 절 등의 종교 활동을 통해 음악 활동을 경험했다고 답한 학생은 총 47명이었으며 성가대 12명(25.5%), 찬양팀 14명(29.7%), 건반악기연주 6명(12.8%), 드럼 3명(6.4%), 기타 3명(6.4%), 오케스트라 3명(6.4%), 그 외 6명(12.8%)의 비율로 나타났다.

즉, 종교 활동 경험의 종류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의 분석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활동은 찬양팀과 성가대인 반면,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한 활동은 드럼과 기타, 오케스트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음악 활동 진행 여부 및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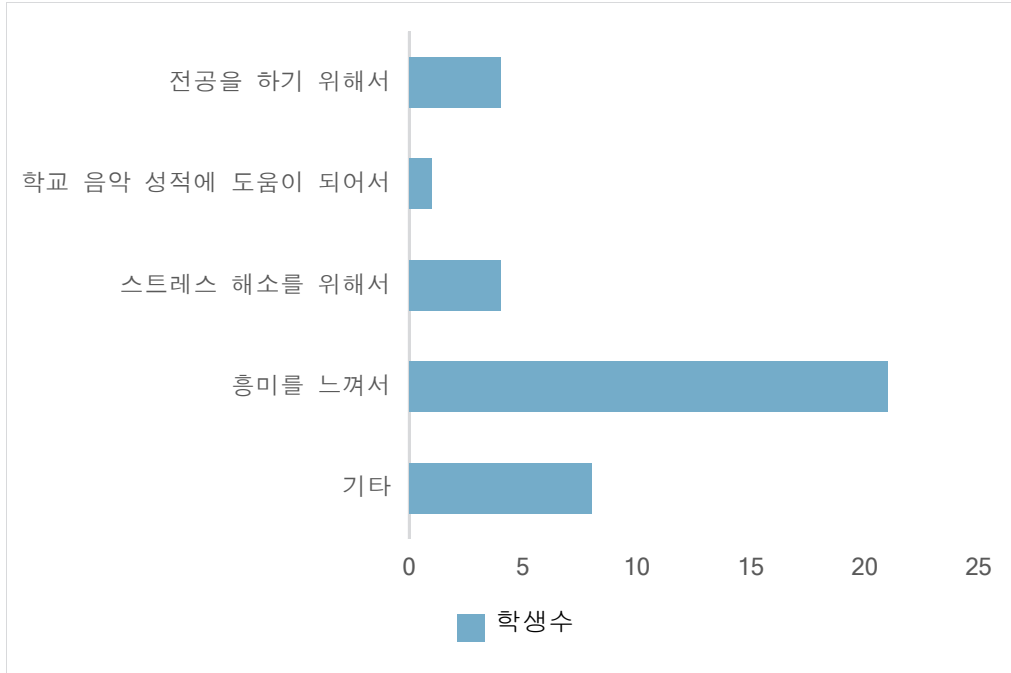
음악 활동을 경험한 학생 143명 중에서 현재에도 음악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의 분석 결과는 <그림 IV-1>과 같다.

<그림 IV-1> 음악 활동 진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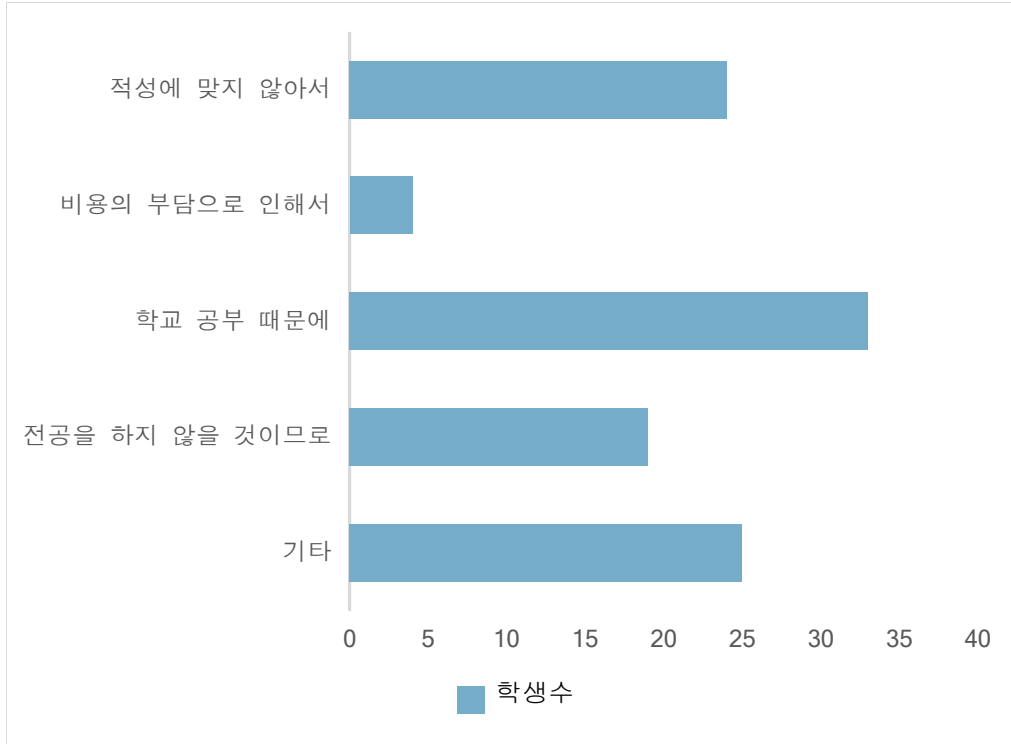
38명의 학생(27%)이 음악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고 105명의 학생(73%)이 음악 활동을 계속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즉, 현재 음악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학생들보다 음악 활동을 계속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 음악 활동 진행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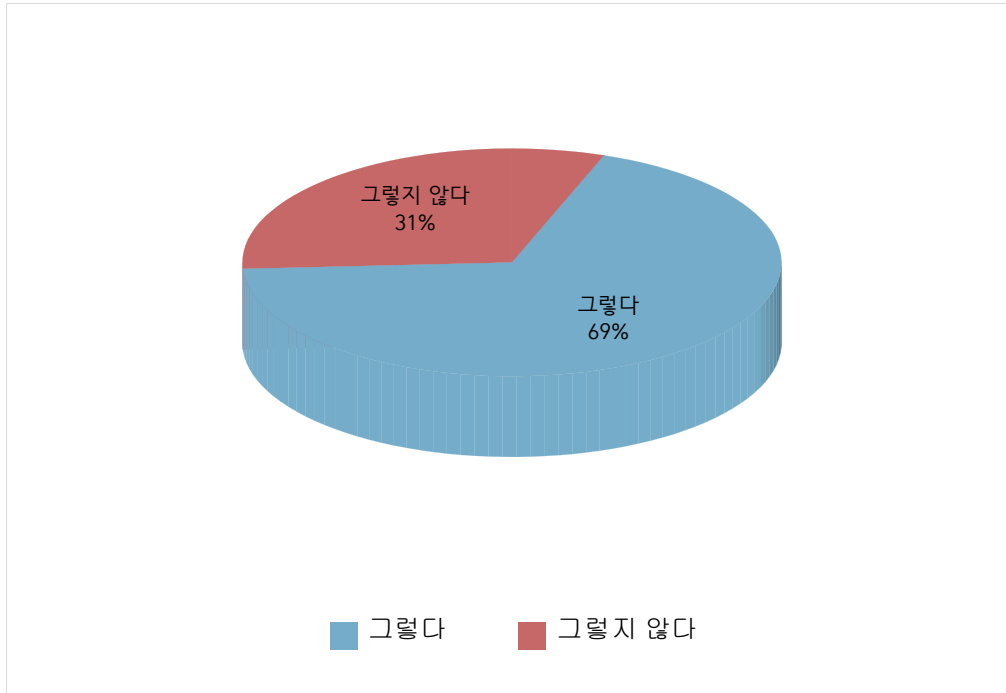
음악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의 결과는 <그림 IV-2>와 같이 나타났다. 음악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 38명 중에서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음악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는 답을 21명의 학생이 선택하였고, ‘기타’를 6명의 학생이 선택하였다. 그리고 전공을 하기 위해서 유지한다는 답을 4명의 학생이 선택하였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4명, ‘학교 음악 성적에 도움이 되어서’ 1명의 순으로 답을 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부모님의 권유로’, ‘나중에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배워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등이 있었다.

<그림 IV-3> 음악 활동을 그만둔 이유



예전에 음악 활동을 하거나 음악을 배웠었지만 현재는 음악 활동을 그만 두게 된 이유는 <그림 IV-3>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 공부 때문’이라는 답이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타’ 25명, ‘적성에 맞지 않아서’ 24명, ‘전공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19명,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서 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이사를 가게 되어서’, ‘학교에서 활동 기간이 끝나서’, ‘흥미가 없어서’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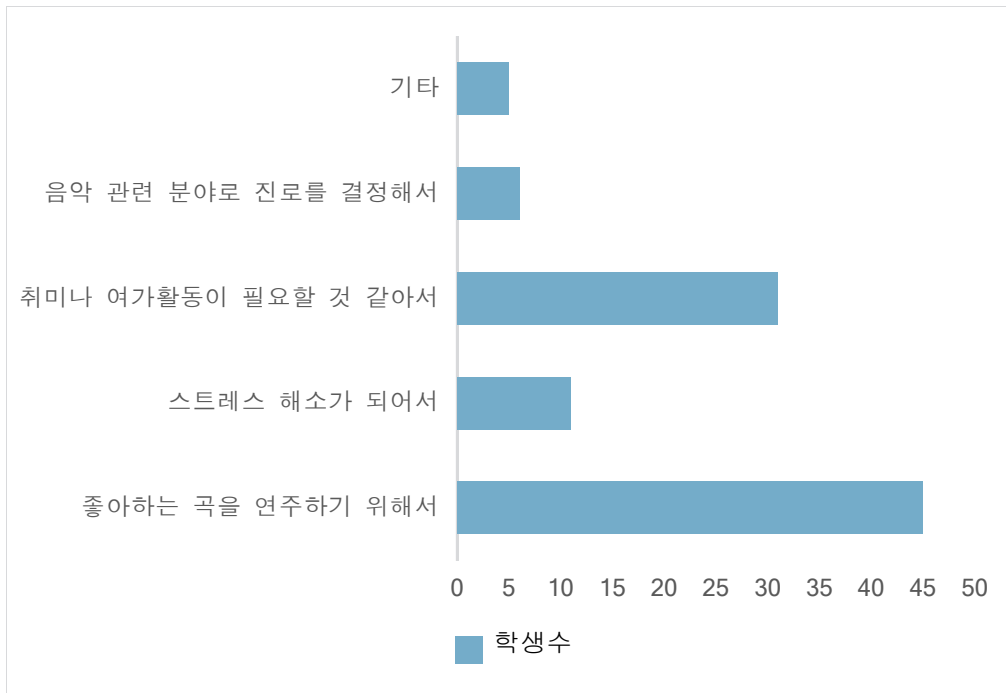
<그림 IV-4> 음악 활동 진행 희망 여부



기회가 된다면 음악 활동이나 음악을 배우는 것을 계속하고 싶은가를 묻는 질문에는 98명의 학생이 '그렇다'고 응답했고, 45명의 학생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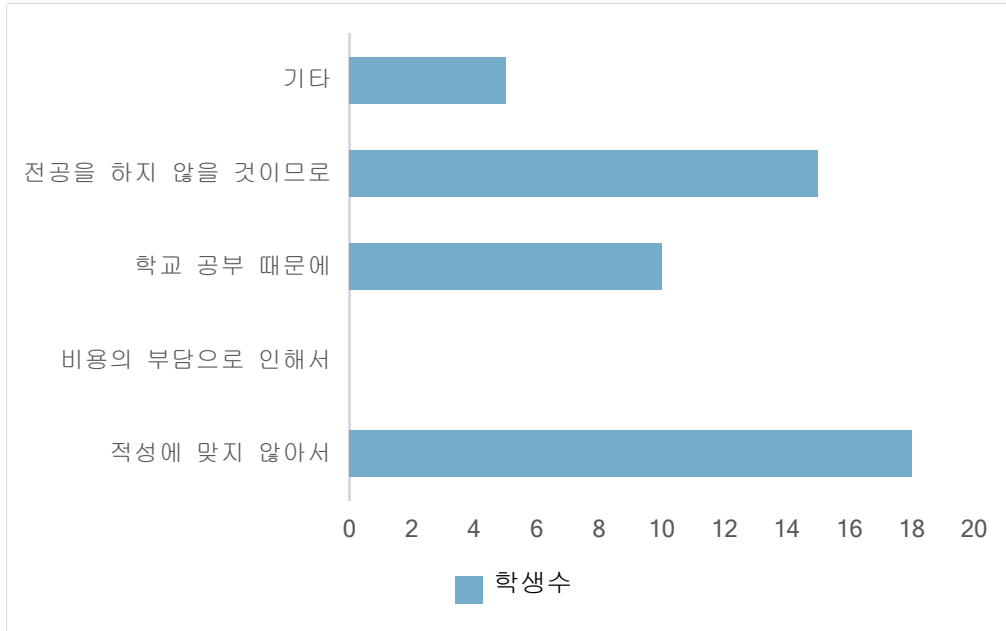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그림 IV-4>에서 볼 수 있듯이 음악 활동을 지속하고 싶은 학생이 69%, 반대로 지속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이 31%로 음악 활동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들보다 음악 활동을 지속하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더 많았다.

<그림Ⅳ-5> 음악 활동을 지속하고 싶은 이유



기회가 된다면 음악 활동이나 음악을 배우는 것을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묻는 질문의 결과는 <그림Ⅳ-5>에서 볼 수 있듯이 ‘내가 좋아하는 곡을 연주하거나 노래해보고 싶어서’가 가장 많은 45명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취미나 여가활동이 필요할 것 같아서’가 31명으로 많았으며 ‘스트레스 해소가 되어서’가 11명, ‘음악 관련 분야로 진로를 결정해서’ 6명, 기타 4명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할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내가 노래하는 모습을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이미 배운 것을 쓸모없게 만들기 싫어서’ 등이 있었다.

<그림 IV-6> 음악 활동을 지속하고 싶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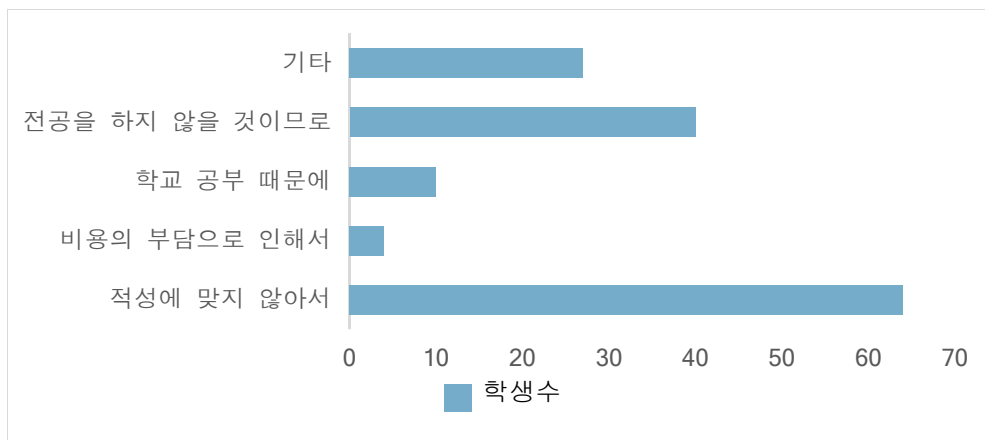
반면, 음악 활동이나 음악을 배우는 것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4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유를 묻는 질문의 결과는 <그림 IV-6>에서 나타나듯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가 18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전공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가 13명으로 두 번째였으며 그 외에 ‘학교 공부 때문에’ 10명, 기타 4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시간이 없어서’, ‘흥미가 없어서’ 등이 있었다.

한편,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서 음악 활동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은 없었다.

#### 다. 음악 활동 경험이 없는 집단

학교 정규 음악 수업을 제외한 음악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145명을 대상으로 음악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그림 IV-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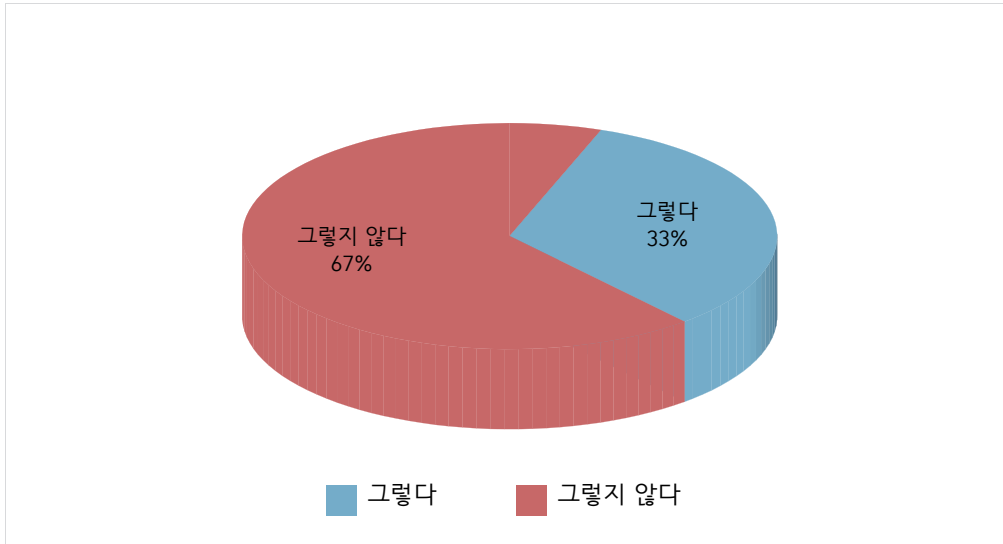
<그림 IV-7> 음악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음악 활동 무경험 집단)



음악 활동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음악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적성에 맞지 않아서’가 64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전공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가 40명, ‘기타’ 27명, ‘학교 공부 때문에’ 10명,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서’ 4명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다른 학원을 가야해서’, ‘기회가 없어서’, ‘음악을 배울 곳이 주위에 없어서’ 등이 있었다.

한편,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적성에 맞지 않아서’는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앞으로 음악 활동을 지속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서도 1순위였다.

<그림 IV-8> 음악 활동 무경험 집단의 음악 활동 희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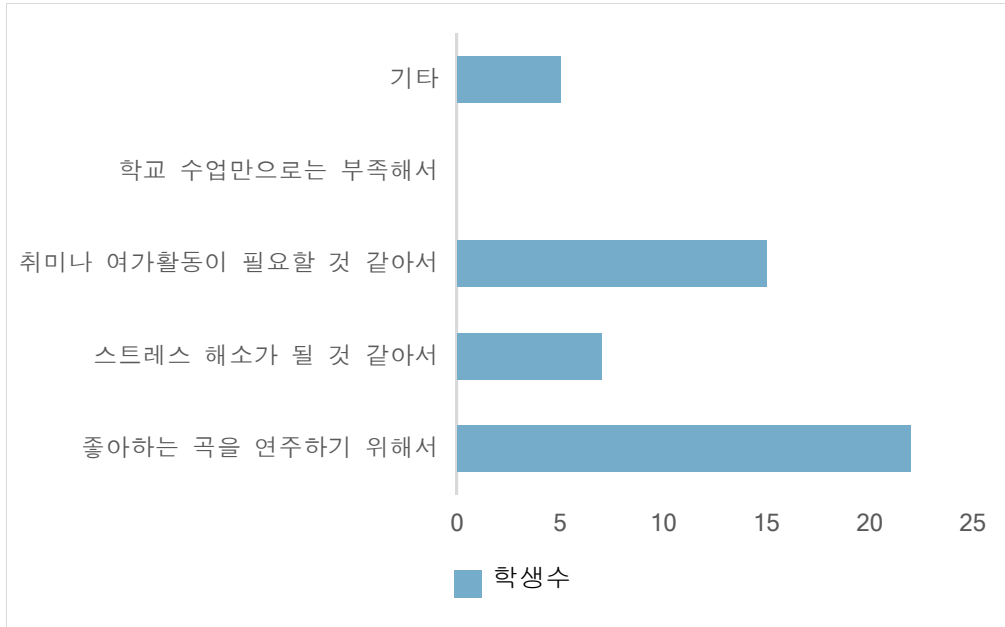


음악 활동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음악 활동을 하거나 음악을 배우고 싶은가를 묻는 질문에는 48명의 학생이 ‘그렇다’고 응답했고, 97명의 학생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IV-8>에서 볼 수 있듯이 음악 활동을 하고 싶다고 답한 학생이 33%, 반대로 음악 활동을 하고 싶지 않다고 답한 학생이 67%로 음악 활동을 하고 싶지 않다고 답한 학생들이 더 많았다.

이와 반대로, 음악 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은 기회가 된다면 음악 활동이나 음악을 배우는 것을 계속하고 싶은가를 묻는 질문에 98명의 학생(69%)이 ‘그렇다’고 응답했고, 45명의 학생(31%)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즉, 음악 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은 음악 활동을 지속하고 싶다고 답한 학생들이 더 많았고, 음악 활동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은 음악 활동을 하고 싶지 않다고 답한 학생들이 더 많았다.

<그림 IV-9> 음악 활동을 희망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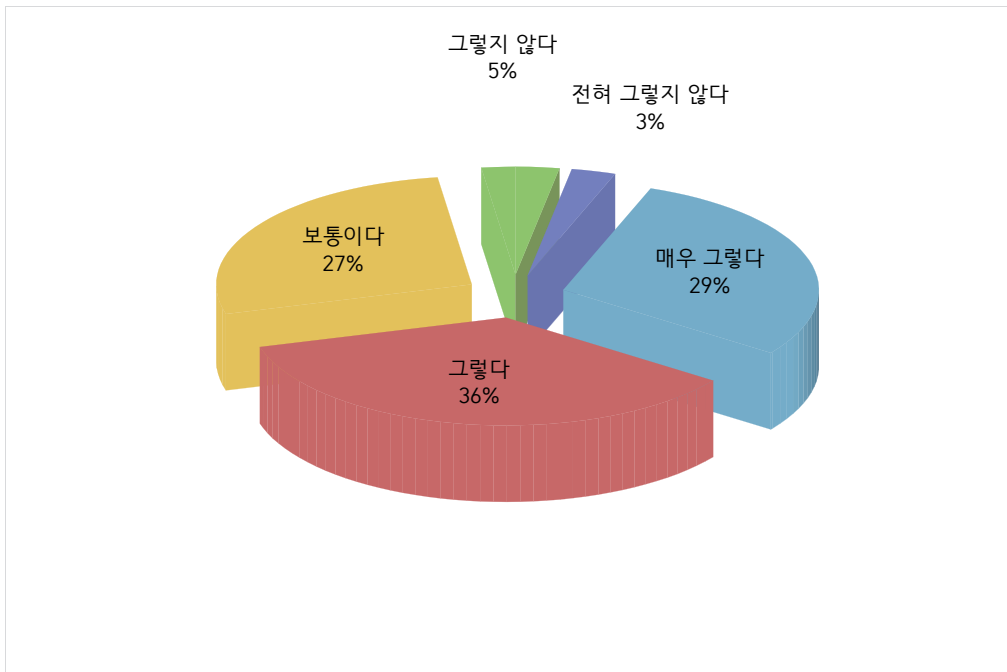


음악 활동을 하지 않은 학생 145명을 대상으로 기회가 된다면 음악 활동을 하거나 음악을 배우고 싶은가를 묻는 질문의 결과는 <그림 IV-9>에서 볼 수 있듯이 ‘내가 좋아하는 곡을 연주하거나 노래해보고 싶어서’가 가장 많은 22명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취미나 여가활동이 필요할 것 같아서’ 15명, ‘스트레스 해소가 되어서’ 7명, ‘기타’ 4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 수업만으로는 부족해서 음악 활동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은 없었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서’, ‘노래를 부를 때 행복해서’ 등이 있었다.

음악 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이 음악 활동을 지속하고 싶은 이유 또한 ‘내가 좋아하는 곡을 연주하거나 노래해보고 싶어서’, ‘취미나 여가활동이 필요할 것 같아서’, ‘스트레스 해소가 되어서’로, 위의 결과와 비슷하다.

라. 음악 활동이 학교 음악 수업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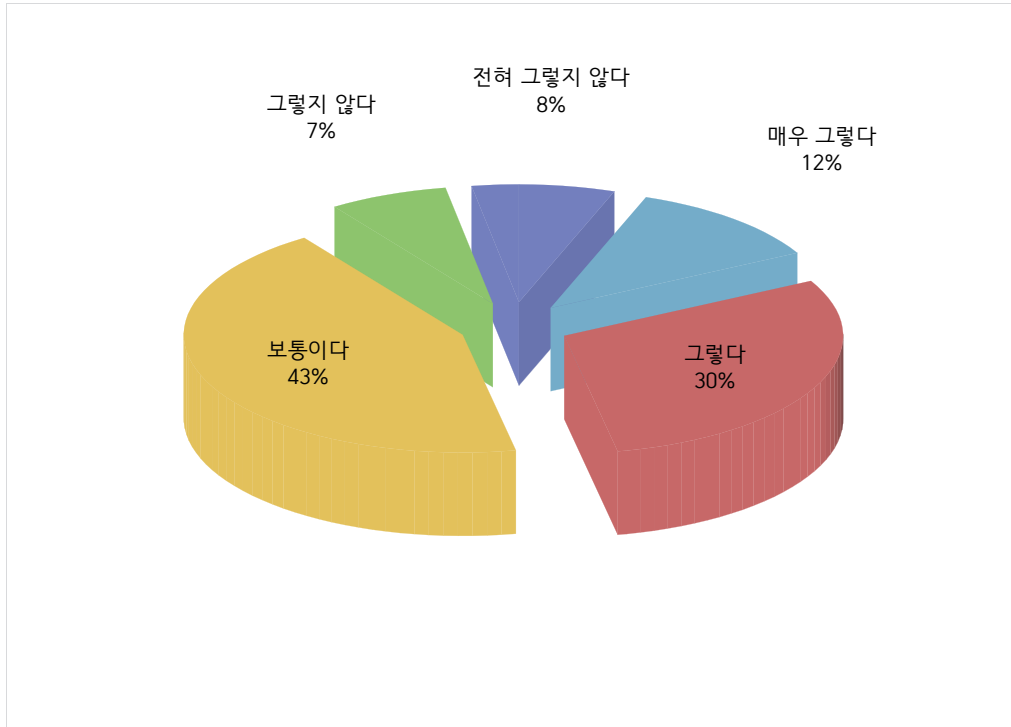
<그림 IV-10> 음악 활동이 수업에 미치는 영향(음악 활동 경험 집단)



학교 정규 음악 수업을 제외한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 143명을 대상으로 개인적인 음악 활동 경험이 학교 음악 수업이나 수행평가, 음악 성취도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질문의 결과는 ‘매우 그렇다’ 42명(29%), ‘그렇다’ 51명(36%), ‘보통이다’ 39명(27%), ‘그렇지 않다’ 7명(5%), ‘전혀 그렇지 않다’ 4명(3%)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그림 IV-10>에서 나타났듯이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적었다. 즉,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에서 65%의 학생들이 음악 활동이 학교 정규 음악 수업이나 수행평가, 음악 성취도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Ⅳ-11> 음악 활동이 수업에 미치는 영향(음악 활동 무경험 집단)



학교 정규 음악 수업을 제외한 음악 활동 경험이 없는 학생 145명을 대상으로 개인적인 음악 활동 경험이 학교 음악 수업이나 수행평가, 음악 성취도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질문의 결과는 ‘매우 그렇다’ 17명(12%), ‘그렇다’ 43명(30%), ‘보통이다’ 63명(43%), ‘그렇지 않다’ 10명(7%), ‘전혀 그렇지 않다’ 12명(8%)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그림Ⅳ-11>에서 나타났듯이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적었다. 즉, 음악 활동 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42%가 개인적인 음악 활동 경험이 학교 음악 수업이나 수행평가, 음악 성취도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음악 활동 경험에 따른 음악 흥미도의 차이

학생의 음악 활동 경험의 유·무에 따라 음악 흥미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의 음악 흥미도와 음악 활동 경험이 없는 집단의 음악 흥미도를 독립표본검정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Ⅳ-7>과 같이 나타났다.

<표Ⅳ-7> 음악 흥미도 독립표본검정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양쪽)
흥미도	등분산이 가정됨	0.806	0.370	7.324	286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7.322	285.374	.000

유의 확률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

이 표는 Levene의 등분산 검정과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Levene의 등분산 검정은 두 집단의 특성이 같은 지 다른 지를 알아보기 위한 검정이다. 이 검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는 유의 확률이다. 유의 확률은 귀무가설을 지지하기 위한 확률로,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이다.

여기서의 귀무가설은 <표Ⅳ-7>에서 ‘등분산이 가정됨’에 해당하며, 이 내용은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특성이 다르다’이다. 대립가설은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에 해당하며, 이 내용은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특성이 같다’이다.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이 기각되는데 분석 결과, 유의확률이 0.370으로 0.05보다 크기 때문에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분산 가정이 설립되므로 두 집단의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은 경험의 유·무에 따른 음악 흥미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검정이다. 이 검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는 t와 유의확률(양쪽)이다. 이 검정은 t의 값이 클수록, 그리고 유의확률(양쪽)의 값이 작을수록 신뢰성이 높다.

여기서의 귀무가설은 '음악 활동 경험의 유·무에 따른 음악 흥미도의 차이가 없다'이며, 대립가설은 '음악 활동 경험이 유·무에 따른 음악 흥미도의 차이가 있다'이다.

이 표에서는 유의확률의 기준이 0.05이므로 t의 절댓값이 1.96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며, 여기서 유의확률은 0.05보다 작아야 이 검정을 신뢰할 수 있다.

<표IV-7>에서 t의 값은 7.324로 1.96보다 크며, 유의확률(양쪽)은 0.000으로 0.05보다 작기 때문에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대립가설이 채택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음악 활동 경험의 유·무에 따른 음악 흥미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Ⅳ-7>에 제시된 독립표본검정의 결과로 인하여 음악 활동 경험의 유·무에 따라 음악 흥미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표Ⅳ-8>은 음악 활동 경험의 유·무에 따른 음악 흥미도의 집단통계량 결과이다.

<표Ⅳ-8> 음악 흥미도 집단통계량

음악 활동 경험의 유·무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YES	143	42.9371	8.94051	0.74764
NO	145	35.3448	8.65093	0.71842

표에 제시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학생 288명 중에서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을 143명, 음악 활동 경험이 없는 학생을 145명으로 각각 분류하였을 때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의 흥미도의 평균은 42.9371로 나타났고, 음악 활동 경험이 없는 집단의 흥미도의 평균은 35.3448으로 나타났다. 즉,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의 흥미도의 평균이 활동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보다 7.5923만큼 높기 때문에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이 음악 활동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높은 음악 흥미도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3. 음악 활동 경험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

학생의 음악 활동 경험의 유·무에 따라 정서지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분석의 결과는 <표IV-9>와 같이 나타났다.

<표IV-9> 정서지능 독립표본검정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양쪽)
정서 지능	등분산이 가정됨	0.001	0.979	3.349	286	.001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3.35	285.487	.001

유의 확률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

우선, Levene의 등분산 검정의 유의확률은 0.979로 0.05보다 크기 때문에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분산 가정이 설립되므로 두 집단의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에서 t의 값은 3.349로 1.96보다 크며, 유의확률(양쪽)은 0.001으로 0.05보다 작기 때문에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대립가설이 채택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음악 활동 경험의 유·무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Ⅳ-9>에 제시된 독립표본검정의 결과로 인하여 음악 활동 경험의 유·무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표Ⅳ-10>은 음악 활동 경험의 유·무에 따른 정서지능의 집단통계량 결과이다.

<표Ⅳ-10> 정서지능 집단통계량

음악 활동 경험의 유·무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YES	143	141.0490	20.03002	1.67499
NO	145	132.9103	21.19156	1.75986

표에 제시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학생 288명 중에서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을 143명, 음악 활동 경험이 없는 학생을 145명으로 각각 분류하였을 때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의 정서지능의 평균은 141.0490으로 나타났고, 음악 활동 경험이 없는 집단의 정서지능의 평균은 132.9103으로 나타났다. 즉,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의 정서지능의 평균이 활동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보다 8.1387만큼 높기 때문에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이 음악 활동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높은 정서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4. 음악 흥미도와 정서지능의 상관관계

음악 흥미도와 정서지능의 상관관계 즉, 관련성의 여부를 알아보고 그 방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 중 이변량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 남학생 집단

<표IV-11>은 남학생 집단에서의 음악 흥미도와 정서지능 간의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이다. 상관분석에서 상관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 지표는 Pearson 상관계수이다. 이 때, Pearson 상관계수의 절댓값이 1에 가까울수록 관련성이 높으며 음수일 경우 두 변수의 관계가 반비례하고, 부정 상관관계라고 하며 양수일 경우 두 변수의 관계가 정비례하고, 이것을 정적인 상관관계라고 한다.

이 검정의 귀무가설은 ‘음악 흥미도와 정서지능의 상관관계가 없다’이며 대립가설은 ‘음악 흥미도와 정서지능의 상관관계가 있다’이다.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는 <표IV-11>에서 유의확률(양쪽)의 값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Ⅳ-11> 남자 상관계수

		정서지능	흥미도
정서지능	Pearson 상관계수	1	.476**
	유의 확률 (양쪽)		.000
	N	157	157
흥미도	Pearson 상관계수	.476**	1
	유의 확률 (양쪽)	.000	
	N	157	157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나타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음악 흥미도와 정서지능 간의 상관계수는 0.476으로 상관관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상관계수의 유의확률이 .000으로 0.05보다 작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상관계수가 유의한 상관관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남학생 집단에서 음악 흥미도와 정서지능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나. 여학생 집단

<표Ⅳ-12>는 여학생 집단에서의 흥미도와 정서지능 간의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Ⅳ-12> 여자 상관계수

		정서지능	흥미도
정서지능	Pearson 상관계수	1	.387**
	유의확률 (양쪽)		.000
	N	131	131
흥미도	Pearson 상관계수	.387**	1
	유의확률 (양쪽)	.000	
	N	131	131

\*\*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나타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흥미도와 정서지능 간의 상관계수는 0.387으로 상관관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상관계수의 유의확률이 .000으로 0.05보다 작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상관계수가 유의한 상관관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여학생 집단에서 음악 흥미도와 정서지능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앞에서 남학생 집단 또한 흥미도와 정서지능이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모두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음악 흥미도와 정서지능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5. 성별에 따른 음악 활동 경험의 영향 차이

앞에서 분석 결과를 통하여 음악 활동 경험이 음악 흥미도와 정서지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때, 음악 활동 경험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수준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의 음악 흥미도와 정서지능으로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 음악 흥미도

<표IV-13>은 학생들이 음악 흥미도 검사지의 문항에 답한 것을 토대로 총 합계를 구하여 성별로 분류하여 총 점수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표IV-13> 성별에 따른 음악 흥미도 교차표

음악 흥미도 합계에 따른 인원수(명)								
합계 성별	20.00	21.00	22.00	23.00	24.00	25.00	26.00	27.00
남자			1	1	1		0	2
여자			0	1	0		2	0
전체(명)			1	2	1		2	2

음악 흥미도 합계에 따른 인원수(명)								
합계 성별	28.00	29.00	30.00	31.00	32.00	33.00	34.00	35.00
남자	1	2	1	1	1	3	1	3
여자	0	1	0	2	0	3	2	2
전체(명)	1	3	1	3	1	6	3	5

음악 흥미도 합계에 따른 인원수(명)								
합계 성별	36.00	37.00	38.00	39.00	40.00	41.00	42.00	43.00
남자	2	1	1	2	0	1	3	2
여자	5	4	4	3	2	4	3	9
전체(명)	7	5	5	5	2	5	6	11

음악 흥미도 합계에 따른 인원수(명)								
합계 성별	44.00	45.00	46.00	47.00	48.00	49.00	50.00	51.00
남자	1	1	1	3	2	2	1	3
여자	2	3	1	1	3	4	6	2
전체(명)	3	4	2	4	5	6	7	5

음악 흥미도 합계에 따른 인원수(명)								
합계 성별	52.00	53.00	54.00	55.00	56.00	57.00	58.00	59.00
남자	2	2	3	0	1	0	0	0
여자	4	4	3	4	1	3	1	1
전체(명)	6	6	6	4	2	3	1	1

음악 흥미도 합계에 따른 인원수(명)		
합계 성별	60.00	전체
남자	1	53
여자	0	90
전체(명)	1	143

음악 활동 경험이 음악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표IV-13>을 토대로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을 나누어 음악 흥미도 합계 평균을 분석하였다.

<표IV-14> 음악 흥미도 합계 평균 분석

성별	흥미도의 총점	명수(N)	총점의 평균
남자	2179	53	41.113
여자	3961	90	44.011

그 결과는 <표IV-14>에서 알 수 있듯이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남학생 집단의 음악 흥미도 합계 평균은 41.113으로 나타났고,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여학생 집단의 음악 흥미도 합계 평균은 44.011으로 나타났다. 즉,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여학생 집단의 음악 흥미도가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남학생 집단보다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 나. 정서지능

<표IV-15> 성별에 따른 정서지능 교차표

		정서지능 합계에 따른 인원수(명)						
성별 \ 합계	48.00	67.00	69.00	89.00	91.00	95.00	96.00	98.00
남자		1	1				0	1
여자		0	0				1	0
전체(명)		1	1				1	1

정서지능 합계에 따른 인원수(명)								
합계 성별	101.00	102.00	103.00	105.00	106.00	108.00	110.00	111.00
남자				1		0		1
여자				0		1		0
전체(명)				1		1		1

정서지능 합계에 따른 인원수(명)								
합계 성별	112.00	113.00	115.00	117.00	118.00	119.00	120.00	121.00
남자	2				1	1	2	1
여자	0				3	2	2	1
전체(명)	2				4	3	4	2

정서지능 합계에 따른 인원수(명)								
합계 성별	122.00	123.00	124.00	125.00	126.00	127.00	128.00	129.00
남자	2	0	2	1	1	2	2	2
여자	0	3	1	1	1	0	1	1
전체(명)	2	3	3	2	2	2	3	3

정서지능 합계에 따른 인원수(명)								
합계 성별	130.00	131.00	132.00	133.00	134.00	135.00	136.00	137.00
남자	1		2	1	1	2	0	1
여자	1		1	1	2	0	3	2
전체(명)	2		3	2	3	2	3	3

정서지능 합계에 따른 인원수(명)								
합계 성별	138.00	139.00	140.00	141.00	142.00	143.00	144.00	145.00
남자	0	0	1	0	2	1	0	0
여자	1	3	2	1	3	3	1	2
전체(명)	1	3	3	1	5	4	1	2

정서지능 합계에 따른 인원수(명)								
합계 성별	146.00	147.00	148.00	149.00	150.00	151.00	152.00	153.00
남자	2	1	1	0	0	1	1	2
여자	0	4	0	3	1	3	1	3
전체(명)	2	5	1	3	1	4	2	5

정서지능 합계에 따른 인원수(명)								
합계 성별	154.00	155.00	156.00	157.00	158.00	159.00	160.00	161.00
남자	0	1	1	0	1	0	0	1
여자	2	3	4	2	4	2	1	0
전체(명)	2	4	5	2	5	2	1	1

정서지능 합계에 따른 인원수(명)								
합계 성별	162.00	163.00	164.00	165.00	166.00	167.00	169.00	170.00
남자	1		1	1	0		0	1
여자	0		2	0	2		1	2
전체(명)	1		3	1	2		1	3

정서지능 합계에 따른 인원수(명)								
합계 성별	173.00	174.00	178.00	180.00	181.00	182.00	183.00	187.00
남자	0	0	1				0	0
여자	1	2	0				1	1
전체(명)	1	2	1				1	1

정서지능 합계에 따른 인원수(명)				전체
합계 성별	188.00	189.00	200.00	
남자		0		53
여자		1		90
전체(명)		1		143

음악 활동 경험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표IV-15>를 토대로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을 나누어 정서지능 합계 평균을 분석하였다.

<표IV-16> 정서지능 합계 평균 분석

성별	정서지능의 총점	명수(N)	총점의 평균
남자	7065	53	133.302
여자	13087	90	145.411

그 결과는 <표IV-16>에서 알 수 있듯이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남학생 집단의 정서지능 합계 평균은 133.302로 나타났고,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여학생 집단의 정서지능 합계 평균은 145.411으로 나타났다.

즉,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여학생 집단의 정서지능이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남학생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음악 흥미도와 같았고, 이를 통하여 음악 활동 경험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6. 결과 요약

이 연구는 인천시 소재 남녀 공학 중학교 3개교의 1학년 남학생 157명과 여학생 131명, 총 288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총 288명의 학생 중에서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은 143명(49.7%)이었고, 음악 활동 경험이 없는 학생은 145명(50.3%)이었다.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어 보면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남학생은 53명(18.4%)이었고 음악 활동 경험이 없는 남학생은 104명(36.1%)이었다. 그리고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여학생은 90명(31.3%)이었고 음악 활동 경험이 없는 여학생은 41명(14.2%)이었다.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 집단이 경험한 활동은 방과 후 활동 55명(19.0%), 개인레슨 및 음악학원 140명(48.4%), 계발활동 47명(16.3%), 종교단체 47명(16.3%)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경험한 계발 활동 종류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차지한 활동은 합창부 22명(46.8%)이었으며, 방과 후 활동은 피아노 16명(29.1%), 개인 레슨과 학원은 음악학원 101명(72.1%), 종교 활동은 찬양팀 14명(29.7%)이었다.

음악 활동을 경험한 학생 143명 중에서 현재에도 음악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학생은 38명(27%)인 반면, 105명의 학생(73%)이 음악 활동을 계속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때, 음악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로, 21명의 학생이 선택하였다. 반면, 예전에 음악 활동을 하거나 음악을 배웠었지만 현재는 음악 활동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학교 공부 때문'이라는 답이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음악 활동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음악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적성에 맞지 않아서'가 64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음악 활동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음악 활동을 하거나 음악을 배우고 싶은가를 묻는 질문에는 48명의 학생(33%)이 '그렇다'고 응답했고, 97명

의 학생(67%)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 때, ‘그렇다’고 응답한 48명의 학생들의 음악 활동 희망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곡을 연주하거나 노래 해보고 싶어서’가 가장 많은 22명으로 나타난 반면, 학교 수업만으로는 부족해서 음악 활동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은 없었다.

학교 정규 음악 수업을 제외한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 143명을 대상으로 개인적인 음악 활동 경험이 학교 음악 수업이나 수행평가, 음악 성취도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질문의 결과는 ‘그렇다’가 51명(36%)으로 가장 많은 반면, 학교 정규 음악 수업을 제외한 음악 활동 경험이 없는 학생 145명의 응답은 ‘보통이다’가 63명(43%)으로 가장 많았다.

음악 활동 경험의 유·무에 따른 음악 흥미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의 음악 흥미도와 음악 활동 경험이 없는 집단의 음악 흥미도를 독립표본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t=7.324$ 이고 유의확률(양쪽)이  $.000$ 이므로 음악 활동의 유·무에 따른 음악 흥미도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두 집단의 집단통계량 결과,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의 음악 흥미도의 평균은 42.9371로 나타났고, 음악 활동 경험이 없는 집단의 음악 흥미도의 평균이 35.3448으로 나타났다. 즉,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의 음악 흥미도의 평균이 활동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보다 7.5923만큼 높기 때문에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이 음악 활동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높은 음악 흥미도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음악 활동 경험의 유·무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를 보기 위한 독립표본검정 결과,  $t=3.349$ 이고 유의확률(양쪽)이  $.001$ 이므로 음악 활동 경험의 유·무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두 집단의 집단통계량 결과,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의 정서지능의 평균은 141.0490으로 나타났고, 음악 활동 경험이 없는 집단의 정서지능의 평균이 132.9103으로 나타났다. 즉, 음

악 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의 정서지능의 평균이 활동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보다 8.1387만큼 높기 때문에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이 음악 활동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높은 정서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음악 흥미도와 정서지능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을 나누어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학생 집단에서의 음악 흥미도와 정서지능 간의 상관계수는 0.476으로 상관관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여학생 집단의 상관계수도 0.387으로 상관관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두 집단 모두 상관계수의 유의확률이 .000으로 0.005보다 작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상관계수가 유의한 상관관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음악 흥미도와 정서지능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른 음악 활동 경험의 영향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의 음악 흥미도와 정서지능으로 교차 분석을 실시하고 음악 흥미도 합계 평균을 분석한 결과, 음악 흥미도의 경우에는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남학생 집단의 음악 흥미도 합계 평균은 41.113으로 나타났고,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여학생 집단의 음악 흥미도 합계 평균은 44.011으로 나타났다. 즉,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여학생 집단의 음악 흥미도가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남학생 집단보다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정서지능의 경우, 남학생 집단의 정서지능 합계 평균은 133.302로 나타났고, 여학생 집단의 정서지능 합계 평균은 145.411로 나타났기 때문에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여학생 집단의 정서지능이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남학생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음악 흥미도와 같았으므로 음악 활동 경험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V. 결 론

이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음악 활동 경험과 음악 흥미도, 정서지능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건전한 음악 활동을 장려하는 데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음악 활동 경험의 유·무에 따른 음악 흥미도의 차이가 있는가?

둘째, 음악 활동 경험의 유·무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가 있는가?

셋째,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중학생의 음악 흥미도와 정서지능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 연구에서는 음악 활동 경험의 유·무에 따른 음악 흥미도, 정서지능의 차이와 음악 흥미도와 정서지능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천시 소재 남녀 공학 중학교 3개교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학교의 1학년 남학생 157명과 여학생 131명, 총 288명을 대상으로 음악 활동 경험 설문지와 음악 흥미도 검사지, 정서지능 척도를 배부하고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회수된 자료들을 토대로 분석하였고, 이에 따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 활동 경험의 유·무에 따른 음악 흥미도의 차이를 알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의 흥미도의 평균( $n=42.9371$ )이 활동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 $n=35.3448$ )보다 7.5923만큼 높기 때문에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이 음악 활동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높은 음악 흥미도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음악 활동 경험은 음악 흥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음악 활동 경험의 유·무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를 알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의 정서지능의 평균( $n=141.0490$ )이 활동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 $n=132.9103$ )보다 8.1387만큼

높기 때문에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이 음악 활동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높은 정서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음악 활동 경험은 정서지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음악 흥미도와 정서지능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을 나누어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학생 집단에서의 음악 흥미도와 정서지능 간의 상관계수는 0.476으로 상관관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상관계수의 유의확률이 .000으로 0.005보다 작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상관계수가 유의한 상관관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남학생 집단에서 음악 흥미도와 정서지능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여학생 집단의 상관계수도 0.387으로 상관관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상관계수의 유의확률이 .000으로 0.005보다 작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상관계수가 유의한 상관관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 집단의 것과 같았으므로 음악 흥미도와 정서지능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음악 활동 경험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수준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음악 흥미도와 정서지능의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여학생 집단의 음악 흥미도( $n=44.011$ )와 정서지능( $n=145.411$ )이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남학생 집단의 음악 흥미도( $n=41.113$ )와 정서지능( $n=133.302$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음악 활동 경험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음악 활동은 학생들의 음악 흥미도와 정서지능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학생들이 다양하고 건전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권석만(2011). *긍정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경희(2004). *정서심리학*. 서울: 박영사.
- 민경훈 외(2013). *음악교육학 총론*. 서울: 학지사.
- 박찬환(2012). *듀이의 경험이론과 교육인식론*. 서울: 학지사.
- 이용남, 김은아(2013). *인간 특성과 교육*. 서울: 학지사.
- 정옥분, 정순화, 임정하(2007). *정서발달과 정서지능*. 서울: 학지사.
- Ciarrochi, Joseph, Forgas, Joseph P., Mayer, John D.(2005). *Emotional Intelligence in Everyday Life*. 박재현, 장승민, 권성우(2005). *정서지능*. 서울: 시그마프레스.
- Matthews, Gerald, Moshe, Zeidner, Roberts, Richard D.(2004). *Emotional Intelligence: Science & Myth*. 문용린, 박윤정, 강민수, 최경아(2010). *정서지능: 그 오해와 진실*. 서울: 학지사.
- Matthews, Gerald, Moshe, Zeidner, Roberts, Richard D.(2013). *Emotional Intelligence 101*. 김정희(2014). *정서지능 101*. 서울: 시그마프레스.

### 학위논문

- 김향숙(2000). 음악적성 및 음악흥미와 정서지능과의 관련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배성애(2000). 음악 적성 및 음악 흥미와 음악 성취도 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세라(2013). 음악 활동경험이 정서지능, 음악적성, 음악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인영(2014). 음악 동아리 활동이 중학생의 음악 흥미도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장지혜(2012). 교내·외 음악 활동 경험이 음악교과 의 성취도 및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기타

교육과학기술부(2009).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 **ABSTRACT**

## **Effects of Music Activity's Experiences on Interest in Music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except for Regular Class**

Ji Hee, Kim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how one's experiences,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ests on musical activities are relative and can be affected on individual's competency. By testing out this experiment, it will encourage youth to have a healthy life.

To begin with selecting three co-education middle schools in Incheon, the survey is handed out for each school which has 157 boys and 131 girls, a total of 288. The questionnaires investigate the participations on musical activities, depth of interest towards music, and emotional intellectual. In order to analyze this research, SPSS WINDOWS 18.0 (statistics program), Independent T Test, Bivariate correlation analysis, and cross analysis have applied.

The result of this survey is concluded as following.

First, it is shown that students who have musical experiences have higher tendency to have more interest on music.

Second, music can be inspired on emotional intelligence.

Third, regardless of gender, music has influenced positive consequences on both male and female. To summary, engaging in music can improve both interest and emotional intelligence.

Therefore, it should be contributed to have more youth to take part in music.

## <부록 1> 음악 활동 경험 설문지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이 연구는 학생의 음악 활동 경험이 음악 흥미도와 정서지능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 알아봄으로써 다양한 음악 활동을 장려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설문지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나 정답이 없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연구의 소중한 자료가 되며, 응답한 내용은 비밀로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과

연구자 김 지 희

※ 해당하는 곳에 √나 ○를 표시해주세요.

성별            ① 남            ② 여

1. 학교 정규 음악 수업을 제외한 음악 활동 (계발활동, 방과 후 활동, 학원, 개인 레슨, 종교 활동 등)을 한 적이 있나요?

① 있다        -> Part. 1 로 가세요. ( 1 페이지 )

② 없다        -> Part. 2 로 가세요. ( 3 페이지 )

## Part. 1.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

### 1. 학교 계발활동

※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악기의 이름과 활동했던 기간, 현재 활동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활동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악기의 이름 예) 바이올린, 기타, 플루트 등	활동했던 기간 예) 6개월, 1년, 2년 등	현재도 활동하고 있나요? (예 / 아니오)
학교 계발활동 (C.A)	합창부 ( )			
	관현악부 ( )			
	밴드부 ( )			
	음악 감상부( )			
	그 외 ( )			
	해당 없음 ( )			

### 2. 학교 방과 후 활동

활동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활동했던 기간 예) 6개월, 1년 등	현재도 배우고 있나요? (예 / 아니오)
학교 방과 후 활동	바이올린반 ( )		
	첼로반 ( )		
	플루트반 ( )		
	피아노반 ( )		
	기타반 ( )		
	가야금반 ( )		
	우쿨렐레반 ( )		
	오카리나반 ( )		
	그 외 ( )		
	해당 없음 ( )		

### 3. 개인 레슨 및 학원

※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악기의 이름과 활동했던 기간, 현재 활동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활동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악기의 이름 예) 바이올린, 기타, 플루트 등	활동했던 기간 예) 6개월, 1년, 2년 등	현재도 활동하고 있나요? (예 / 아니오)
개인 레슨 및 학원	개인레슨 ( )			
	음악학원 ( )			
	문화센터 ( )			
	그룹지도 ( )			
	그 외 ( )			
	해당 없음 ( )			

### 4. 종교 활동

활동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악기의 이름 예) 바이올린, 기타, 플루트 등	활동했던 기간 예) 6개월, 1년, 2년 등	현재도 활동하고 있나요? (예 / 아니오)
종교 활동 (교회, 성당, 절 등)	성가대 ( )			
	찬양팀 ( )			
	건반악기반주( )			
	드럼 ( )			
	기타 ( )			
	오케스트라 ( )			
	그 외 ( )			
	해당 없음 ( )			

### 5. 현재 음악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6번 문항으로 가세요.  
 ② 그렇지 않다 -> 7번 문항으로 가세요.





## <부록 2> 음악 흥미도 검사지

### 음악 흥미도 검사지

번호	음악흥미 검사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음악 수업을 좋아하며, 수업 시간이 기다려진다.			
2	음악 시간에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르고 수업에 집중한다.			
3	음악 이론에 대해 잘 알고 싶다.			
4	특별활동이나 방과후 교육활동에서 음악 활동을 선택하고 싶다.			
5	나는 음악적 재능이 있다고 생각한다.			
6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음악 과목을 선택하고 싶다.			
7	나는 클래식이나 국악 등 다른 음악에도 관심이 있다.			
8	나는 핸드폰에 음악 관련 앱(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있다.			
9	나는 음악 듣기를 좋아한다.			
10	평소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 연주하는 것을 좋아한다.			
11	기분이 우울할 때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부르면 기분이 좋아진다.			
12	음악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 시간이 즐겁다.			
13	다른 친구가 연주할 때 주의 깊게 들어주고 칭찬 또는 평가를 해준다.			
14	기회가 있으면 음악회에 가고 싶다.			
15	나는 음악에 관한 도서나 잡지를 즐겨 읽는다.			
16	TV나 라디오의 음악 관련 프로그램을 좋아한다.			
17	음악에 관련된 책이나 악보, CD를 사고 싶다.			
18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낀 적이 있다.			
19	장래에 음악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다.			
20	나는 음악이 학교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한다.			

### <부록3> 정서 지능 검사지

#### 정서 지능 검사지

번호	정서 지능 검사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만으로도 기분이나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편이다.					
2	나는 내 친구에게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내 기분도 언짢고 속상하다.					
3	나는 일이나 행동을 선택할 때 이후에 일어날 상황과 느낄 감정을 생각해보는 편이다.					
4	나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동시에 미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나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잘 조절하는 편이다.					
6	나는 그림이나 음악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감정을 잘 이해하는 편이다.					
7	나는 따돌림을 받거나 외톨이로 지내는 친구를 보면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다.					
8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기 위해 감정을 잘 조절하는 편이다.					
9	나는 경외심이나 두려움이 복잡한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10	나는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그 일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떠오르곤 한다.					
11	나는 친하지 않은 사람의 감정도 잘 파악하는 편이다.					
12	나는 내 친구가 칭찬을 받고 좋아하면 나또한 기분이 좋다.					
13	나는 꼭 해야 할 일에 흥미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14	나는 감정이나 기분이 매우 복잡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15	나는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대로 표현하는 편이다.					
16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표현이나 행동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인지 아닌지 잘 알아차리는 편이다.					
17	나는 노숙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고 안쓰럽다.					
18	나는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을 위해 당장 하고 싶은 일을 참는 편이다.					

19	나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감정의 차이를 잘 알고 있다.					
20	나는 불쾌한 기분이 들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가 있다.					
21	나는 나의 감정 상태를 잘 알고 있는 편이다.					
22	나는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나도 기분이 좋다.					
23	나는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하는 편이다.					
24	나는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25	나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다투면 화가 풀리지 않는다.					
26	나는 감정이나 기분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표현하는 편이다.					
27	나는 내 친구가 성적이 올라서 좋아하면 축하해주고 싶다.					
28	나는 감정 상태에 따라 내 능력의 발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29	나는 짜증과 분노의 감정 간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30	나는 기분이 나쁜 일이 생기면 다른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잊으려고 노력한다.					
31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을 잘 모르는 편이다.					
32	나는 노숙하는 사람을 보면 지지분하고 무능력하다고 느낀다.					
33	나는 즐거운 기분으로 인해 어떤 어려움을 잘 해결해 본 경험이 있다.					
34	나는 분노의 감정도 정도가 있다는 것을 안다.					
35	나는 우울하거나 슬퍼서 한동안 아무것도 못한 적이 있다.					
36	나는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갖거나 좋아해도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편이다.					
37	나는 따돌림 당하는 아이를 보면 나도 상대하기 싫어진다.					
38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예전에 유사한 상황에서 내 감정이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곤 한다.					
39	나는 분노의 감정도 상황에 따라 다른 감정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40	나는 내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을 잘 내는 편이다.					